

이 보도자료는 2021. 8. 8.(일) 09:00(2021. 8. 9. 조간용)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 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이혜은**

전화 02-530-4780 / 팩스 02-536-5410

보도자료

2021. 8. 9.(월)

제 목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 수사·공판 중간결과**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의 불기소처분 사건(제10조 제1항 제2호)
 -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제10조 제2항)
 - 혐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제10조 제3항)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 ※ 2021. 8. 4.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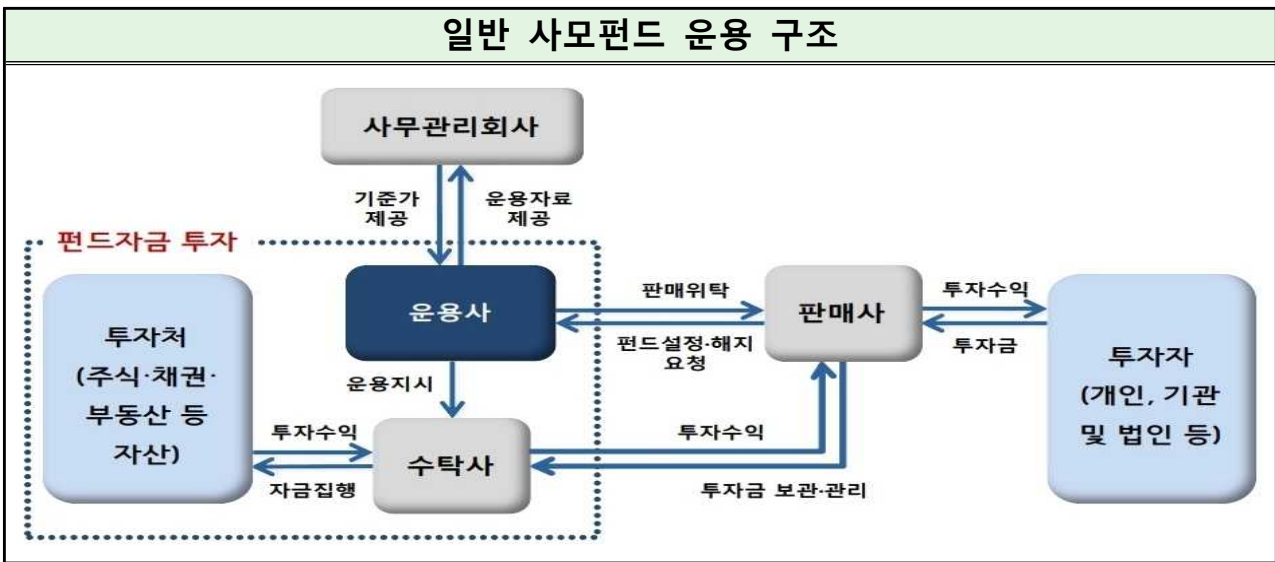
-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경제범죄형사부, 범죄수익환수부)은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을 ① 펀드 운용 비리 ② 펀드자금 사용처 비리 ③ 펀드 로비 비리 ④ 범죄수익환수 등 4개 분야로 수사한 결과, '20. 6.경부터 현재까지,
 - 총 32명을 기소 등 처분(구속 15명, 불구속 16명, 기소중지 1명)하고,
 - 총 40회 추징보전 결정을 통해 펀드 자금이 투입된 61개 사업장 등에 대해 **합계 4,200억 원의 재산을 동결 조치**하였으며,
 - '21. 7. 20. 범행을 주도한 ㄱ○○○자산운용(주) 대표이사 A○○에게 **징역 25년**이 선고(쌍방 항소)되는 등 현재까지 총 10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검찰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린 책임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 및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옵티머스 사모펀드 운용 개관

1. 일반 사모펀드 운용 구조

- 7000자산운용(주)는 소규모 투자자(자본시장법상 49인 이하)로부터 모은 자금을 투자에 운용하는 사모(私募)펀드¹⁾ 방식으로 투자업을 하였는바, 사모펀드는 대규모 투자(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가 허용되는 공모(公募)펀드에 비해 투자자 모집 등 운용이 보다 자유로움²⁾
-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는 ① 운용사, ② 판매사, ③ 수탁사, ④ 사무관리회사를 통해 운용되는데, 운용사는 펀드상품을 만들어 운용하고, 판매사는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며(사무관리회사를 통해 펀드가격 등 결정), 수탁사는 펀드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구조임
- ※ 사모펀드는 원칙적으로 49인 이하로 투자자가 제한되나, 7000자산운용(주)는 유사한 펀드 120여개(펀드당 평균 100~150억 규모)를 만들어 증권사 등 공신력 있는 판매사를 통해 판매하여, 결과적으로 50인 이상의 다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모집
- ⇒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펀드 쪼개기’를 규제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기초자산 및 손익구조 등이 유사할 경우 하나의 펀드로 보아 공모펀드로 규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예정('21. 10. 21.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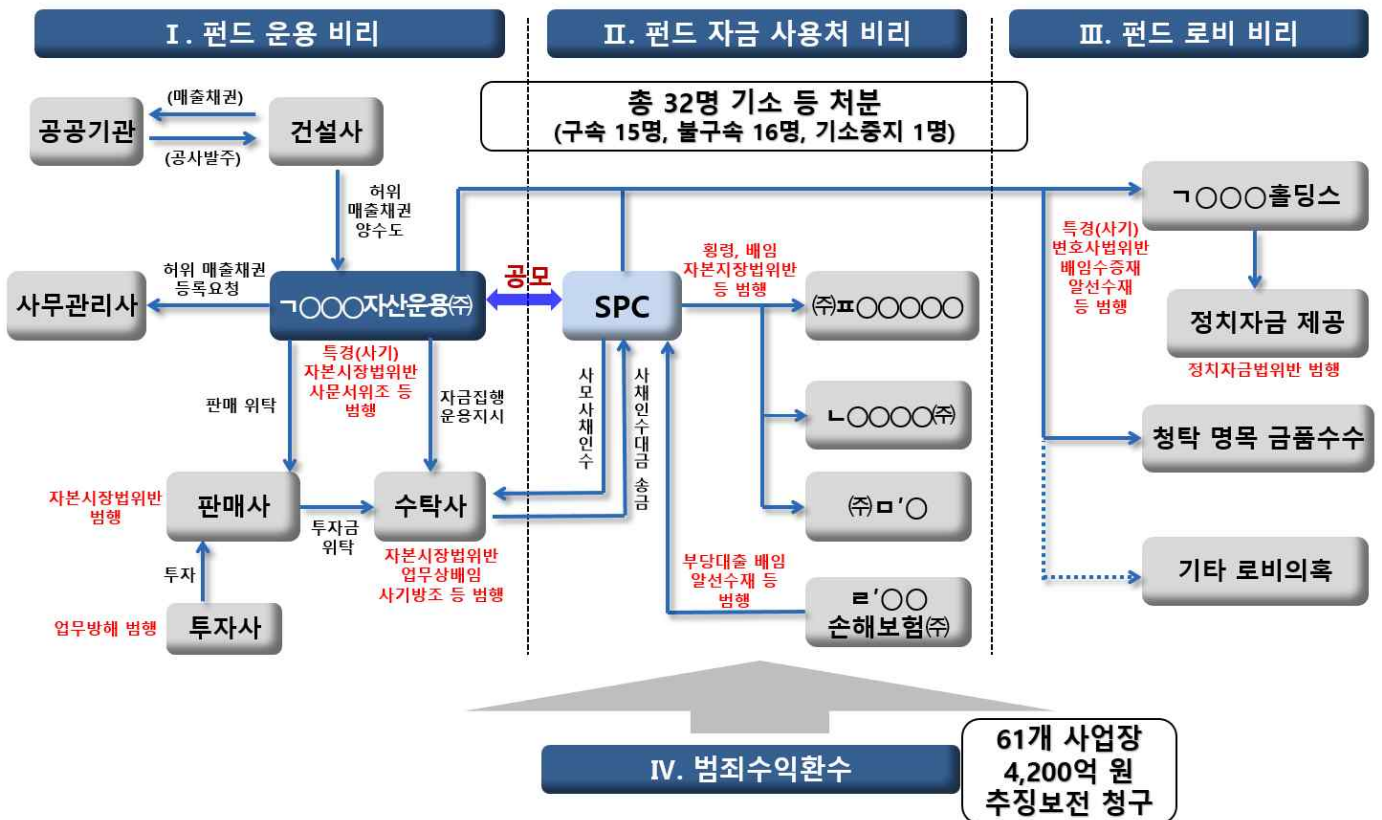


- 1) 사모펀드(Private Placement Fund) : 자본시장법상 49인 이하의 특정한 소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펀드로, ①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Hedge Fund), ② 회사경영에 참여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로 구분됨
- 2) 옵티머스 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Hedge Fund)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전문투자형 펀드는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성향이 강해 투자 수익 및 위험도가 높음

2. 옵티머스 사모펀드 불법 운용 구조

- 1000자산운용(주)가 판매사 등에 제공한 투자제안서에는 안정적 자산인 공공기관 발주 매출채권을 할인 매입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하겠다고 제시함
- 그러나, 실제로는 ① 피고인들의 지배하에 있는 SPC(특수목적법인)의 사모사채만을 매입하였음에도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한 것처럼 사무관리회사(한국예탁결제원)를 속여 자산명세부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② 매출채권 서류 등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고, ③ 실제 공공기관 매출채권 대금을 과다하게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운용함
- 또한, 위와 같이 불법 모집한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대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부실채권 인수, 상장회사 인수, 개인 선물옵션 투자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함

II 사건 구조





펀드 운용 비리

1. [운용사] ㄱ○○○자산운용(주) 관련

○ 개요 : 허위·과장 매출채권을 이용한 폰지형 펀드 투자사기 범행

- '20. 6. 검찰은 허위·과장 매출채권에 투자하도록 기망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폰지형(Ponzi Scheme)³⁾ 펀드 투자사기 범행을 주도한 ㄱ○○○자산운용(주) 대표이사 A○○ 등 5명을 특경(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 등 하였고, '21. 7. 20. 1심에서 위 A○○에게 징역 25년이 선고(쌍방 항소)되는 등 중형이 선고되었음

○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등

순번	피고인 및 직위	주요 공소사실 요지 및 죄명	주요 경과
1	A○○(49세), ㄱ○○○자산운용(주) 대표이사	① (A○○, B○○, C○○, D○○) 1조 1,427억 원 허위 매출채권 펀드 사기 및 투자제안서 허위 기재[특경(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20. 7. 22. 구속 기소 '21. 7. 20. 1심 판결 선고(징역 25년), 항소 중
2	B○○(45세), SPC 대표이사	② (A○○, C○○, D○○)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 위조 및 행사[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20. 7. 22. 구속 기소 '21. 7. 20. 1심 판결 선고(징역 8년), 항소 중
3	C○○(43세), ㄱ○○○자산운용(주) 사내이사 및 변호사	③ (A○○, E○○) 2,099~2,855억 원 허위 매출채권 펀드 사기 및 투자제안서 허위 기재[특경(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④ (A○○, E○○, C○○) ㄴ○○○○(주) 자금 150억 원 횡령[특경(횡령)], 이체확인증 위조 및 행사[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20. 7. 22. 구속 기소 '21. 7. 20. 1심 판결 선고(징역 8년), 항소 중
4	D○○(49세), ㄱ○○○자산운용(주) 사내이사	⑤ (A○○, B○○, C○○) ㄷ○○○○(주), ㄹ○○○○○○(주) 자금 295억 원 횡령[특경(횡령)]	'20. 7. 22. 불구속 기소 '21. 7. 20. 1심 판결 선고(징역 3년), 항소 중
5	E○○(40세), ㄴ○○○○(주) 고문	⑥ (A○○) (주) ㅁ○○○○, (주) ㅂ○○○○○○○○, (주) ㅅ○○○ 법인 자금 합계 508.5억 원 횡령 [특경(횡령)] ⑦ (E○○) (주) ㅇ○○○○그룹 자금 16.34억 원 횡령[특경(횡령)]	'20. 8. 10. 구속 기소 '21. 7. 20. 1심 판결 선고(징역 7년), 항소 중

3) 폰지형 사기(Ponzi Scheme) : 실제론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고수익을 약속하고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돌려막기형 사기범행으로서,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Charles Ponzi)가 범행한 피라미드식 금융 다단계 사기 행각에서 유래

2. [판매사] ㄱ○투자증권(주) 관련

○ 개요 : 확정수익을 불법 보전해 준 범행

-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ㄱ○투자증권(주)가 보다 많은 펀드 판매를 위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확정수익을 불법적으로 사후 보전해 준 사실을 확인하여 담당부장 등 3명 및 법인을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등

순번	피고인 및 직위	주요 공소사실 요지 및 죄명	주요 경과
1	F○○(51세), ㄱ○투자증권(주) 펀드솔루션부장	① (F○○, G○○, H○○) 옵티머스 사모펀드 판매를 위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1.2억 원의 확정수익을 사후 보전 [자본시장법위반] ② (ㄱ○투자증권(주)) 양벌규정 위반[자본시장법위반]	'21. 5. 28. 불구속 기소
2	G○○(47세), ㄱ○투자증권(주) 펀드솔루션부 부부장		
3	H○○(40세), ㄱ○투자증권(주) 펀드솔루션부 과장		
4	ㄱ○투자증권(주)		

3. [투자사] ㄷ○○○○○○○○○진흥원 관련

○ 개요 : 수익형 상품을 확정형 상품으로 기망한 범행

- 옵티머스 초기 투자자인 ㄷ○○○○○○○○○진흥원의 前기금운용본부장이 수익형 상품인 옵티머스 사모펀드를 확정형 상품으로 속이고 거액의 기금투자를 결정하게 하는 등 공정한 기금 운용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하여 불구속 기소하였음

○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등

순번	피고인 및 직위	주요 공소사실 요지 및 죄명	주요 경과
1	I○○(59세), ㄷ○○○○○○○○○ 진흥원 본부장	위계를 통해 투자상품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ㄷ○○○○○○○○○진흥원의 적정한 기금운용 업무를 방해[업무방해]	'21. 5. 28. 불구속 기소

4. [수탁사] (주)K○은행 관련

○ 개요 : 펀드 자금 전용 범행

-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주요 수탁사인 (주)K○은행이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전용한 사실 등을 확인 하여 담당부장 등 3명 및 법인을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등

순번	피고인 및 직위	주요 공소사실 요지 및 죄명	주요 경과
1	J○○(51세), (주)K○은행 수탁영업부장	① (J○○, K○○) 수탁 중인 다른 펀드자금을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대금 92억 원 돌려막기에 전용[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배임]	'21. 5. 28. 불구속 기소
2	K○○(51세), (주)K○은행 수탁영업부 차장	② (J○○)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비정상적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3	A○○(49세), Γ○○○자산운용(주) 대표이사	143억 원의 사모펀드 판매 방조[특경(사기) 방조, 사기방조]	
4	(주)K○은행	③ (J○○, A○○) 이해관계 거래 및 자기 거래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위반]	
5	Γ○○○자산운용(주)	④ ((주)K○은행, Γ○○○자산운용(주)) 양벌 규정 위반[자본시장법위반]	

IV 펀드자금 사용처 비리

1. 개요

- 옵티머스 사모펀드 자금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A○○ 등은 막대한 펀드 자금을 이용한 수익 창출을 위해 일명 '기업사냥꾼'들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상장회사 인수 또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무차별적으로 투자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투자받은 회사 대표들과 공모하여 투자된 자금을 불법 회수하는 등 과정에서 횡령·배임 등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여, 5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1명 기소중지)

2.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등

○ (주)ㅍ○○○○○(선박 부품 제조업체) 및 (주)ㄷ'○○○(주)ㅍ○○○○○(자회사)

순번	피고인 및 직위	주요 공소사실 요지 및 죄명	주요 경과
1	Y○○(61세), (주)ㅍ○○○○○ 前 대표이사	① (Y○○) (주)ㅍ○○○○○ 자금 50억 원을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자금으로 임의 사용 [특경(횡령)]	'20. 11. 30. 구속 기소
2	Z○○(55세), (주)ㄴ'○○○○○ 前 회장	② (Y○○, b'○○) 횡령 사실 은폐를 위해 허위 문서 등을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출 [특경(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 행사, 외감법위반]	'20. 11. 30. 구속 기소
3	a'○○(60세), (주)ㄷ'○○○ 前 부회장	③ (Z○○, a'○○) (주)ㄷ'○○○ 자금 30억 원을 (주)ㅂ'○ 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특경(횡령)]	'21. 3. 26. 불구속 기소
4	b'○○(54세), (주)ㄷ'○○○ 前 이사	④ (Z○○, b'○○) (주)ㄷ'○○○ 자금 22.5억 원을 다른 상장사 인수 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특경(횡령)]	'20. 11. 30. 불구속 기소

○ ㄴ○○○○(주)(화장품·마스크 제조업체)

순번	피고인 및 직위	주요 공소사실 요지 및 죄명	주요 경과
1	c'○○(51세), ㄴ○○○○(주) 前 대표이사	① (c'○○, d'○○) ㄴ○○○○(주) 자금 150억 원 횡령[특경(횡령)]	'20. 11. 4. 구속 기소
2	d'○○(54세), ㄴ○○○○(주)前 회장	② (c'○○, d'○○) 위조된 이체확인증을 이사회에 제시[위조사문서행사]	'20. 11. 4. 기소중지

○ ㄹ'○○손해보험(주)(보험사)

순번	피고인 및 직위	주요 공소사실 요지 및 죄명	주요 경과
1	e'○○(43세), ㄹ'○○손해보험(주) 前 팀장	① 부정한 청탁에 따라 (주)ㅅ'○○○○○○에 140억 원 부실 대출[특경(배임)] ② 부당 대출 대가로 30억 원 수수[특경(수재등)]	'21. 2. 9. 구속 기소 '21. 7. 23. 1심 판결 선고(징역 5년), 항소 중

○ (주)ㅇ'○(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순번	피고인 및 직위	주요 공소사실 요지 및 죄명	주요 경과
1	f'○○(50세), (주)ㅇ'○ 대표이사	① (주)ㅇ'○ 인수자금 용도로 (주)ㅇ'○○ 자금 26억 원을 편취하고, 자금 출처 허위 공시 [특경(사기), 자본시장법위반] ② (주)ㅇ'○ 자금 64억 원을 횡령하고, (주)ㅇ'○ 주식 거래 관련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특경(횡령), 자본시장법위반]	'21. 3. 31. 구속 기소

V

펀드 로비 비리

1. ㄱ○○○홀딩스 로비 관련

○ 개 요

▪ (주)ㅇ○○○○○ 소액주주 대표에게 임시주총 의결권 불행사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한 ㄱ○○○홀딩스 회장인 로비스트 L○○(일명 '신회장') 등 4명을 특경(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고, '21. 5. 14. 위 L○○에게 징역 4년 등의 1심 판결이 선고(쌍방 항소)되었음

○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등

순번	피고인 및 직위	주요 공소사실 요지 및 죄명	주요 경과
1	L○○(56세), ㄱ○○○홀딩스 회장	① (L○○, M○○, N○○) (주)ㅇ○○○○○ 임시주총의 소액주주 대표가 요구하는 금액을 부풀려 A○○을 기망한 다음 10억 원 편취 [특경(사기)]	'20. 12. 4. 구속 기소 '21. 5. 14. 1심 판결 선고(징역 4년), 항소 중
2	M○○(55세), ㄱ○○○홀딩스 본부장	② (L○○, M○○, N○○) (주)ㅇ○○○○○ 임시주총의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하고 6.5억 원을 교부[배임증재, 상법위반]	'20. 11. 25. 구속 기소 '21. 5. 14. 1심 판결 선고(징역 3년 6월), 항소 중
3	N○○(56세), ㄱ○○○홀딩스 대표	③ (L○○, M○○, N○○) ㄱ'○감독원의 옵티머스 사모펀드 검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 수수[변호사법위반] ④ (O○○) (주)ㅇ○○○○○ 임시주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청탁에 따라 6.5억 원 수수[배임수재, 상법위반]	'21. 3. 23. 구속 기소 '21. 6. 11. 1심 판결 선고(징역 3년 6월), 항소 중
4	O○○(61세), (주)ㅇ○○○○○ 소액주주 대표	⑤ (O○○) A○○에게 (주)ㅇ○○○○○ 무자본 인수와 관련한 형사고발로 협박하여 10.5억 원 갈취[특경(공갈)]	'21. 2. 3. 구속 기소

2. 정치자금 제공 관련

○ 개요

- 故P○○(前 大'○○○○당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에게 정치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무실 임대보증금 2,700만 원 및 1,260만 원 상당의 가구, 복합기 임차료 등을 제공한 L○○ 등 3명을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 故P○○는 수사 중 사망하여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하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당시 당대표 Q○○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음('21. 4. 26.)

○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등

순번	피고인 및 직위	주요 공소사실 요지 및 죄명	주요 경과
1	L○○(56세), ㄱ○○○홀딩스 회장	① (L○○, M○○) 故P○○에게 1,260만 원 상당의 가구, 복합기 임차료와 사무실 임대보증금 1,100만 원 기부[정치자금법위반]	'21. 4. 26. 불구속 기소
2	M○○(55세), ㄱ○○○홀딩스 본부장	② (R○○) 정치활동을 위한 사무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故P○○에게 1,700만 원	
3	R○○(53세), 회사원	기부[정치자금법위반]	

3. 청탁 명목 금품 수수 관련

○ 개요

- 大'○○○○○○○○○○진흥원 기금을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유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4,400만 원을 수수한 로비스트 S○○(일명 '정회장') 등 4명을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인지하여 2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등

순번	피고인 및 직위	주요 공소사실 요지 및 죄명	주요 경과
1	S○○(57세), (주)ㅎ○○○(봉헌 물류단지 사업 시행사) 대표이사	① 옵티머스 사모펀드를 정부 산하기관의 매출채권에 투자할 것처럼 ㄸ○○○○○ ○○진흥원을 기망하여 1,060억 원 편취 [특경(사기), 자본시장법위반] ② ㄸ○○○○○○○○○진흥원 기금을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청탁 명목으로 1억 4,400만 원 수수[변호사법위반]	'20. 12. 14. 구속 기소
2	T○○(61세), ㄱ'○감독원 前 국장	펀드 투자자 알선 대가로 9,200만 원 수수· 요구[특경(수재등)]	'21. 1. 27. 불구속 기소
3	U○○(57세), ㅋ'○○○○○○○ 개발원 원장	(주)표○○○○○ 경영권 인수를 위해 사건 수사를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6.3억 원 수수[변호사법위반]	'20. 12. 30. 구속 기소
4	V○○(59세), (주)ㅌ'○○○개발 (부동산 개발 회사) 대표	ㄱ'○감독원의 옵티머스 사모펀드 검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 수수[변호사법위반]	'20. 12. 4. 불구속 기소 '21. 5. 14. 1심 판결 선고(무죄), 항소 중

4. 기타 로비 의혹 관련

○ '펀드 하자치유' 문건에 등장하는 옵티머스 고문들의 로비 의혹 사건

- ㄱ○○○자산운용(주) 대표이사 A○○이 작성한 '펀드 하자치유' 문건에 기재된 '옵티머스 고문단', '기타 조력자 및 SPC 고문들' 의혹과 관련하여, 문건에 등장하는 인사들의 펀드 사기 범행 가담 및 정치권, ㄱ'○감독원 등 로비 의혹에 대하여 수사하였음
- 그러나, A○○은 ㄱ'○감독원 검사를 연기할 목적으로 펀드 운용 상황과 고문단의 역할 등을 **과장하여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위 문건에 기재된 인물들로부터 옵티머스 사모펀드 운용 및 판매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 처분함**('21. 8. 4.)

※ 위 '펀드 하자치유' 문건에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자금이 투입된 봉현 물류단지 사업에 대하여, ㄱ〇〇〇자산운용(주)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ㅈ'〇** 소속 변호사 W〇〇(前 검찰총장)이 X〇도지사에게 **인허가 관련 청탁**한 것으로 의혹되는 내용이 있어 함께 확인하였음

- 확인한 결과, W〇〇과 X〇도지사 모두 2020. 5.경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봉현 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한 청탁 사실은 부인하고 있고, 2021. 6.경 X〇도에서 봉현 물류단지 사업의 **인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 처분**하는 등 진행된 전체 사업경과에 비추어 **수사를 더 진행할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 前 청와대 행정관 금품수수 의혹

- 前 청와대 자치행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g'〇〇(대기발령중)이 ㄱ〇〇〇홀딩스 회장 L〇〇로부터 종로구 소재 오피스텔을 2개월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고, 그 대가로 L〇〇 지인의 사업을 돕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사건을 수사하였음
- 그러나, 계좌거래내역 등 분석 결과 오피스텔 월세 비용을 오피스텔 1층 현금 지급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위 사업 관련 압력 내지 특혜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등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함('21. 8. 4.)

※ 前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h'〇〇가 ㄱ〇〇〇자산운용(주) 관련 SPC 대표이사 B〇〇로부터 남편 C〇〇를 통해 수입 감소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임

VI 범죄수익환수

1. 펀드 자금 흐름

○ 개 요

- 펀드 자금에 대한 전면적 계좌추적 결과, 자금 대부분이 **부동산개발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인수대금**으로 지급 되었고, 그 중 대부분이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사용되었으며, 사업에 투자된 일부 자금 이외에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펀드 자금 흐름 확인 결과

- 펀드 설정액은 1조 5,952억 원이고(114개 펀드), 1조 5,927억 원이 SPC의 사모사채 인수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중 5,194억 원이 미상환됨
- 사모사채 인수 대금 중 6,565억 원이 부동산개발 등 사업에 투자되었고, 그중 2,173억 원이 SPC에 회수되었으며, 4,391억 원은 미회수됨

2. 환수 및 보전조치

○ 개요

- 자금추적 및 회계분석을 통해 펀드 자금이 투입된 63개 사업에 대한 투자 내역을 조사한 결과, 피고인들의 일반재산 및 61개 사업에 투자되어 잔존하는 재산 합계 4,200억 원을 총 40회에 걸쳐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동결 조치하였음

○ 구체적인 보전조치 현황

- 옵티머스 펀드 자금 투자 63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61개의 잔존 재산 합계 4,200억 원을 확인·동결함(미상환 펀드액의 80.86%, 미회수 투자금의 95.65%에 해당)
- 추징보전 재산 중 95.69%(4,119억 원)가 SPC 등 차명으로 보유되었으나,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됨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보전 조치함
- 동결 재산(4,200억 원)은 ① 대여·투자금 반환 채권 3,298억 원(76.15%), ② 부동산 635억 원(15.12%), ③ 주식 236억 원(5.63%), ④ 예금 126억 원(3.02%)으로 구성

재산 종류	예 금 (예금액)	부동산 (공시지가)	주 식 (액면가)	채 권 (채권액)	동 산 (거래가)	합 계
재산 가액	126.85억	635.35억	236.54억	3,198.96억	3.1억	4200.8억
청구 비율	3.02%	15.12%	5.63%	76.15%	0.08%	100%

【 주요 재산추적 사례 】

- ① [회사 대여금 150억 원 반환 채권] '20. 5. 'A○○ 명의 모든 채권을 타인 명의로 변경하라'는 A○○ 지시에 따라, A○○ 보유 채권이 법무법인 포'○ 보유 채권으로 위장되었으나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A○○의 자산임을 밝혀 추징보전

- ② [부산 사하구 개발 사업 투자수익금 350억 원 지급 채권] ‘투자금 350억 원은 모두 상환되어, 대여금 33억 원 반환 채권만 잔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밀한 계좌추적 및 투자약정서, 민사재판 자료 분석을 통해 위 33억 원 외에 투자수익금 350억 원 확정 채권의 존재를 밝혀 추징보전
- ③ [구미 부동산 매매 사업 관련 위약금 35억 원 지급 채권] ‘위약금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기를 달리하여 작성된 4개의 분양계약서를 정밀 검토한 후 계약금 35억 원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있음을 밝혀 추징보전

○ 범죄수익 은닉 행위 엄단

- i'○○(○○○○자산운용(주) 고문) 및 A○○을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제주 소재 빌라를 은닉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인지하여 불구속 기소함

VII 참고사항

- 2017.~2018.경 옵티머스 펀드 사기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급격하게 확산되기 전에 검찰이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 향후에도 검찰은 자본시장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린 이 사건 책임자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적극 앞장서겠습니다.☞